

김유신 ‘칼 제구’로 KIA 좌완 갈증 푼다

상무서 전역…187cm 장신에 묵직한 구위·정교함 장점
지난해 퓨처스리그 12승·방어율 2.25로 투수 2관왕
커브·체인지업 자유자재 구사…“양현종 선배가 롤모델”

KIA 타이거즈의 예비역 김유신이 세밀함으로 2021시즌 선발을 노린다.

KIA는 지난 6일부터 합평 캠프단을 가동하면서 2021시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좌완 김유신도 헬런저스 필드를 누비며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김유신은 심동섭과 함께 KIA의 좌완 갈증을 풀어줄 기대주로 꼽힌다. 특히 선발 자원으로 눈길을 끈다. 구단의 기대도 그렇고 본인의 욕심도 선 발이다.

187cm 장신인 김유신은 체격 만큼 스피드가 빠르지는 않지만 묵직한 구위와 정교한 제구가 장점이다.

세광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난 2018년, 1군에서 10경기 13이닝을 경험한 그는 상무에서 한 단계 더 성장했다.

2019년 상무 선발을 맡은 김유신은 2.25의 평균자책점으로 12승을 챙기며 퓨처스리그 평균자책다승 2관왕에 등극했다.

올 시즌은 팔꿈치 수술 여파로 쉬어갔지만, 선발 가능성을 보여준 기대주. 21살의 어린 나이에 전략적으로 일찍 군 복무를 마쳤다는 점도 장점이 다.

김유신은 “군대 일찍 간 것은 정말 잘 한 것 같다. 어릴 때 군대 다녀오니가 좋은 것 같다”며 “수술도 잘 됐다. 재활은 마무리됐고, 라이브피칭까지 들어갔다”고 이야기했다.

수술 전 걱정은 있었지만, 지금은 기대감으로 내년 시즌을 내다보고 있다.

김유신은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예전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며 “지금은 던지면서 불편한 부분이 없어졌다. 구속도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웃었다.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이후 구속이 증가하는 사례들이 있는 만큼 김유신도 내심 스피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시즌 최고 스피드는 140km. ‘제구’로 김유신은 선발 자리를 어필할 계획이다.

김유신은 “선발 욕심이 난다”며 “공은 빠르지 않지만 그만큼 구석구석 던지면서 승부한다. 제구력으로 어필하겠다. 카운트마다 던질 수 있는 변화구를 가지고 있다. 커브,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는데 던지고 싶은 대로 던진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하나 상무에서 많은 경기를 하면서 쌓은 경험도 선발 경쟁을 앞둔 김유신의 큰 자산이다.

김유신은 “많은 타자들을 상대하다보니 노리고 들어오는 것과 노리고 있는 것, 치려고 하는 자세가 보인다. 이렇게 던지면 방향이가 나오겠구나 그런 것을 배운 것 같다”며 “군대 가기 전보다 여유도 많이 생기고 판단하는 것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좌완이자 동기 하준영과 좋은 경쟁자이자 동료로 내년 시즌 역할을 하는 게 김유신의 목표다.

김유신은 “준영이가 2019년에 정말 잘 던졌다. 어떻게 저렇게 잘 던지냐는 생각을 했다”며 “내가 저기 있었으면 어떻게 던졌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 나도 욕심난다. 지난해 같은 날 문경에서 동시에 최고 스피드를 찍기도 했다. 나도 스피드가 더 나오도록 해보겠다”고 웃었다.

또 “킥프 시작했고 전역까지 했으니까 몸을 잘 만들고, 구속을 조금 더 올려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며 “선발로 최소 8승을 하고, 풀타임 뛰고 싶다. (양)현종 선배처럼 멋있게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태극전사’ 쏘니 “멕시코·카타르에 설욕 기대해”



만추 속 ‘브이’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이 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마리아엔처스도르프 BSFZ아레나 보조경기장에서 훈련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번도 최고라고 생각한 적 없어…황희찬·황의조와도 케미 좋을 것”

1년 만에 태극전사로 돌아온 손흥민이 멕시코·카타르전 ‘필승’을 외쳤다.

손흥민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과 멕시코의 평가전을 사흘 앞둔 12일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가진 대한축구협회(KFA)와 인터뷰에서 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설욕’을 원한다고 했다. 코로나19를 뚫고 1년 만에 원정길에 오른 벤투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멕시코(15일), 카타르(17일)를 차례로 상대한다.

두 팀 모두 한국에 큰 아픔을 줬던 팀이다. 멕시코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1-2 패배를 안겨 한국의 조별리그 탈락에 결정타를 날렸다. 한국은 카타르에는 2019 아시안컵 8강전에서 0-1로 졌다. 벤투 감독 부임 이래 첫 패배였다.

손흥민은 이들 두 경기 모두 선발로 출전했다.

손흥민은 “두 팀 모두 큰 대회에서 경기를 치렀고, 우리에게 아픔을 줬다”면서 “선수들에게 이번 두 경기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줬다. 나도 두 팀 모두 이기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손흥민과의 일문일답.

-오랜만에 대표팀에 왔다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표팀에 들어오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광스러운 일니까. 동료들을 1년 만에 만나게 돼서 기뻐다. 그러나 설레는 기분 느끼려고 대표팀에 오는 건 아니잖나. 많은 팬이 대표팀 경기를 기다리셨다. 좋은 경기로 팬들을 찾아뵙겠다.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새 얼굴도 있다. 어린 선수 중에 기대되는 선수는

▲못은 선수들 너무 아쉽다. 다들 대표팀에 얼

마나 오고 싶겠다. 오지 못한 선수들 마음, 이해된다. 어린 선수들은 모두가 기대된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도 그랬지만, 우리 어린 선수들은 늘 잘 따라준다.

-벤투 감독과 처음 보고 무슨 얘기 나눴나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평소에 가끔 통화하는 사이다. (웃음) 날 보더니 ‘오랜만에 봤는데 안 바뀌었네. 우리 코치진은 좀 바뀐 것 같으냐’고 물으며 반기셨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자타공인 최고의 선수다

▲나를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정말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다. 소속팀에서, 대표팀에서 늘 최선을 다하려고, 내 기량을 다 보여주려고 노력해왔을 뿐이다.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뛰는 건 느낌이 다르다. 좋은 경기 펼칠 수 있게 잘 준비하겠다.

-소속팀에서 해리 케인과 환상의 공합을 보여주고 있다. 황희찬·황의조와도 그런 모습 기대해도 되겠다.

▲케인은 오래 발맞춘 선수다. 매 순간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공통점이다. 나보다 어리지 만, 열심히 한다. 희찬이 의조도 마찬가지다. 희찬이와 의조는 소속팀에서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난 소속팀에서 운이 좋은 거다. 둘이 더 나은 모습으로 소속팀에 돌아가게끔 돕는 것도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혹사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히다

▲매번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웃음) 나에게는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난 축구 하는 게 늘 꿈이었고, 축구 할 때 행복하다. 당연히 피곤할 때도 있고, 이동시간도 많고… 하지만 이런 건 내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지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류, 사이영상 투표 3위

비버, AL리그 만장일치 수상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다.

류현진은 12일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가 발표한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 결과에서 2위표 4장, 3위표 7장, 4위표 5장, 5위표 4장을 받아 총점 51점으로 셰인 비버(클리블랜드 인디언스·210점), 마에다 겐타(미네소타 트윈스·92점)의 뒤를 이었다.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뛴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표 1장, 2위표 10장 등 88점을 얻어 2위를 차지했는데, 올해에도 최종 후보에 올라 득표에 성공했다.

2년 연속 1위표 득표엔 실패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12경기(67이닝)에 선발 등판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 탈삼진 72개를 기록하며 토론토의 에이스 역할을 다했다.

1위표는 비버가 모두 가져갔다. 그는 만장일치로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만장일치가 나온 건 이번이 10번째다.

사이영상 투표는 BBWAA 회원기자 30명이 참여했으며 투표는 정규시즌 종료 후 진행됐다.

사이영상 투표권자는 1위부터 5위까지 5명의 투수를 선택하고 순위별 점수를 매겨 사이영상 수상자를 뽑았다.

비버는 올 시즌 12경기(77.1이닝)에 출전해 8승 1패 평균자책점 1.63, 탈삼진 122개, 마에다는 11경기(66.2이닝)에서 6승 1패 평균자책점 2.70, 탈삼진 80개의 성적을 거뒀다. /연합뉴스

‘수원 삼성’ 염기훈

내년까지 계약 연장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캡틴’ 염기훈(37)이 2021년까지 수원 유니폼을 입고 뛴다.

수원 구단은 12일 “염기훈이 구단과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호남대를 졸업하고 2006년 전북 현대에서 프로에 데뷔해 울산 현대를 거쳐 2010년부터 수원에서 뛴 염기훈은 K리그 통산 396경기에서 76골 110도움을 작성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수원에서만 363경기에 출전해 70골 117도움을 올렸고, 7차례 팀의 주장을 맡는 등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다.

K리그 최다 도움 기록과 구단 통산 최다 골·최다 도움 기록도 염기훈이 보유하고 있다.

내년에도 K리그1에서 뛰게 된 그는 K리그 최초 80-80클럽 가입과 K리그 400경기 출전, K리그 최다 프리킥 골(현재 에닝요와 공동 1위) 등 새로운 기록 달성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뇌수술’ 마라도나 퇴원

뇌 수술을 받은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60)가 퇴원했다.

이달 3일 두부 외상 후에 출혈이 생겨 뇌 경막 아래 피가 고이는 장막하혈종으로 수술을 받은 마라도나는 1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올리보스의 병원에서 퇴원했다.

지난달 30일 60세 생일을 맞은 그는 이달 2일 빈혈, 탈수 등 증상으로 소속팀인 아르헨티나 프로축구 힌나시아의 연고지라 플라타의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장막하혈종 진단을 받고 전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다.

수술받은 지 8일이 지나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나선 마라도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쪽의 티그레에서 요양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티그레는 마라도나의 딸인 히아이나의 집과 가까운 곳이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 전력이 있는 마라도나는 약물에서는 벗어났으나 알코올 의존 증상은 여전히 있어 관련 치료도 해 나갈 예정이다.

1986년 월드컵에서 선수로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고 은퇴 이후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지낸 마라도나는 지난해부터 힌나시아의 감독을 맡고 있다.

마라도나는 1997년 선수 은퇴 이후 지속해서 건강 문제를 겪어 왔다. 2004년엔 심장 마비로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하기도 했다.

마라도나의 변호인인 마티아스 모를라는 취재진에게 “마라도나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모른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출혈을 발견한 건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 “마라도나의 회복 의지는 강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